

# 철성대를 통해서 본 제주국제자유도시 디자인의 방향과 과제

- '별의 도시, 제주' 창조를 위한 제언 -

강 문 규 \*

## I. 들어가며

### 1. 도시디자인이란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도시디자인 정책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을 비롯하여 지식경제부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산 장소 문화공간 사업, 공공디자인엑스포, 국토해양부의 공공시설디자인 개선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등 각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기본계획에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 이를 정책화<sup>1)</sup>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디자인은 정부와 지자체들의 새로운 도시를 지향하는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은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건축물·옥외광고물 및 도시시설물의 색채·형태·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결과물"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법률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디자인'의 근본적인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디자인'은 아름답고 편리한 것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도시디자인'은 아름답고 편리한 삶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시민의 생활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의 외형적 디자인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의미 있게 디자인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자연과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디자인은 그 도시의 환경적 특성과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반영해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공중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창의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도시디자인이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논의되고 정책화 되고 있는 배경에는 기존의 도시 개발이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획일화, 물질화, 무개성화, 비인간화로 흘러왔다는 각성이 깔려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도시의 건전한 생태성과 인간성 회복이라는 명제 속에서 문화예술과 복지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로서 꿈을 펼치고자 그 실현수단으로 공공영역에 디자인을 접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들은 도시디자인을 실천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기능의 제도화 및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고, 특정지역을 시범적인 도시디자인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상세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 강문규 (한라일보 논설실장, 사단법인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1)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평화의 섬, 제주'를 기본구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10년에는 도시디자인본부를 신설하는 등 도시디자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2. 제주도시의 자화상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시는 어떤 자화상을 갖고 있는가. 제주특별자치도는 1960년대부터 전기, 전화, 도로, 용수개발사업 등의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3개 단지, 13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관광개발사업이 착수되었고, 한편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과 취락구조개선 사업이 전개되었다. 1980년대를 전후해 벌어진 대규모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제주에도 현대적 도시형태가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본격화 된 제주개발은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부정적 평가도 만만치 않다. 제주고유의 마을풍경과 경관은 크게 훼손되거나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개발과 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천박한 상업자본의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도시들은 제주 고유의 정체성과 경관을 살리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이 가진 지질·경관·생태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이 낡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시디자인에 관한 논의와 시책은 196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급속한 도시개발에 관한 성찰과 바람직한 제주도시를 위한 고민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 수십 년간 추진된 도시개발 행태를 탈피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삶을 편안케 하면서 제주를 찾는 이들에게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러한 의지는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품격과 방향, 정체성을 갖추려는 미래지향적 사고의 흐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구태의연한 현상은 여전히 건히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과 더불어 경관관리 등에 관한 권한이 이양된 뒤 오히려 각종 개발사업을 빌미로 고유한 경관을 깨트리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지자체와 시민사회 간에 갈등과 대립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한 경관관리 권한을 다시 환수하는 내용을 명문화<sup>2)</sup>한 대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20m에서 지상 50층 240m 완화, 제주시 노형동의 고층빌딩이 허가되었거나 허가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제주의 도시구조와 부조화스러운 개발과 난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관리 행태가 제주사회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우려의 대상으로 비쳐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제주사회에 난개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무분별한 고도완화시책에 제동을 거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기존의 사고와 행태에서 환골탈태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II. 제주도시의 제 얼굴 찾기

사람의 얼굴이 제 각각인 것처럼 모든 도시도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모든 도시는

2) 이번 개정된 조항에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중 경관정책의 변경이나 경관관리계획을 채수립할 경우, 그리고 특정규모 이상의 관광개발 사항'을 새로 포함시키고 있다.

저마다 고유한 장소에 건설되었으며, 고유한 역사와 더불어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도시는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역사·문화적 자산, 그리고 시민들의 꿈과 삶을 바탕으로 할 때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 흔히 세계수준의 도시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저마다 자기 도시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도시의 문화경쟁력과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발전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해야 할 제주다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그리고 그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주도시의 디자인 전략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추구해야 할 때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서는 ‘제주다운 서사적 풍경’을 제주도시 경관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3)</sup>. 이는 자연풍경과 함께 과거가 지속적으로 땅에 새겨온 기억들을 존중하고 보존하면서, 새로운 욕망이 덧씌어져 가는 과정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풍경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서사적 풍경’이야말로 바로 ‘제주다운 경관’이자, 제주경관의 정체성이며 도시디자인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경관관리 개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서사적 풍경’을 이루는 제주의 경관적 요소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바다와 섬, 해안에서 오름과 평원, 그리고 한라산은 공간적으로 이곳과 저곳을 연결하고 있는 제주다운 ‘서사적 자연풍경’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 제주는 오랜 세월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형성해 왔다. 따라서 제주다운 서사적 풍경은 탐라개국 이래 제주사회의 구성원들을 결집시키면서, 공동체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데 자양분이 되어온 역사·문화적 진수(眞髓)를 담아내야 한다.

또한 제주의 자연과 문화풍경은 내부적으로 제주인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고양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 세계인들에게도 다가설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내포한 압축파일이라야 한다. 그래야 제주도시디자인의 경쟁력과 자원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제주사회의 일각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칠성대’는 바로 제주의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디자인의 상징적 존재라고 평가할 수 있다.

### Ⅲ. 칠성대는 무엇인가

#### 1. 칠성대에 관한 기록

칠성대는 탐라사회 초기형성기인 1,500년 전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전해내려 온 제주역의 핵심유적이다. 제주 주성(州城)내에 칠성대가 존재했음을 나타내는 자료는 조선조 중종 25년(1530) 『신증동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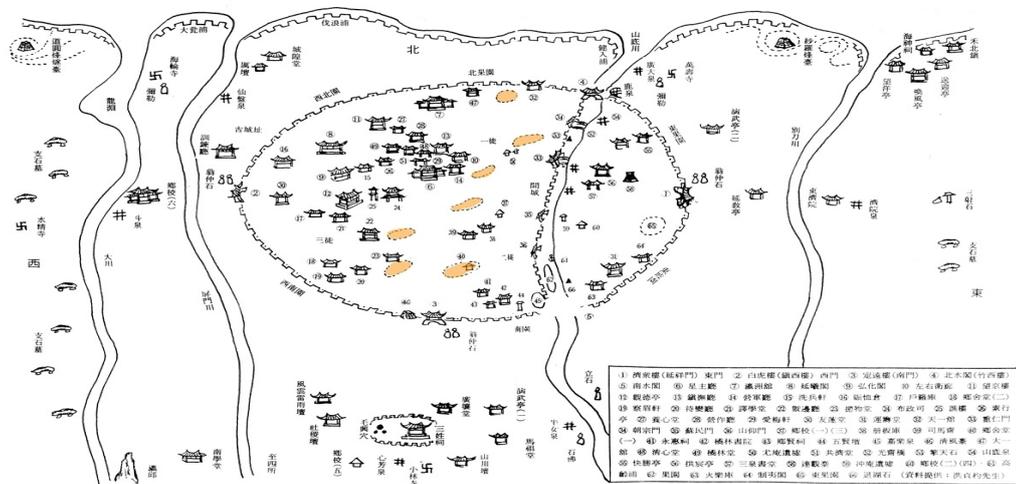
3)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사적 풍경’은 시간과 공간이 서사적으로 연결된 풍경으로서, 시간적으로 과거와 미래가 하나의 현재가 되는 자연풍경과 과거가 이 땅에 새겨온 기억과 욕망이 덧씌워진 총체적 풍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하여 제주목사를 역임한 이원진(李元鎭, 1594~?)의 『탐라지(耽羅志)』 (1653), 이원조(李源祚, 1792~1872)의 『탐라지(耽羅誌)』, 김정(金倣, 1670~1739)의 『노봉문집(蘆峯文集)』 등에 언급되고 있다. 이어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 『제주도(濟州圖)』, 19세기 초 제작된 전라도 남원 양씨(梁氏) 족보의 『제주도전도(濟州島全圖)』, 20세기 초 홍종시(洪鍾時, 1857~1936, 한말 제주의 대표적 문사)가 그린 『제주고적도(濟州古蹟圖)』, 김석익(金錫翼, 1885~1956, 일제강점기 제주의 대표적 한학자)의 『과한록(破閑錄)』 (1923), 『매일신보』 (1926)에 실린 칠성단 사진과 기사, 1954년 담수계(淡水契)가 펴낸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1979년 『탐라성주유사(耽羅星州遺史)』에 게재된 홍정표(洪貞杓, 1907~1992)와 홍순만(洪淳晩)의 기고, 소설가 오성찬의 칠성대에 관한 고로의 구증(1992), 강문규의 「칠성대와 지명고찰」 (1992), 「칠성대는 왜 쌓았나」 (2006), 「칠성대에 관한 일고찰」 (2011), 홍기표의 「칠성대 유적의 역사 문화적 사실 고증」 (2011) 등이 보인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에 “칠성도 = 주성 안에 있다. 돌로 쌓았던 옛 터가 있다. 삼성이 처음 나왔을 때 삼도를 나누어서 차지하였는데, 북두성의 형체를 모방하여 대를 쌓고 나누어 거처하였기 때문에 칠성도라고 하였다”(七星圖=在州城內石築有遺址三姓初出分占三徒倣北斗形築臺分據之因名七星圖)”라고 기록되어 나타난다.

이원진의 『탐라지』와 이원조의 『탐라지』에도 칠성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소이하다. 김정의 『노봉문집』에는 “월대는 관덕정 뒤에 있고 칠성도는 성안에 흩어져 있는데 모두 돌과 흙으로 쌓아 놓은 것이다. 그러나 무너져 남아 있지 않아 겨우 그 터를 알 수 있을 뿐이기에 수축하도록 명을 내렸다(月臺在觀德亭後七星圖散在城內皆築石累土而頽毀無僅辨基址命使修築)”는 기록이 보인다. 김정은 이에 관한 시도 남겼는데 “옛 도읍의 유적 날로 황량한데/ 근처에 사는 사람들 모두 헐어 무너뜨렸네 / 평평한 언덕처럼 마구 다녀 한 번 이치를 밝히니/ 성안 가득 별과 달 다시 빛을 발하네(古都遺跡日荒涼 着處人爲搗毀傷 往復平阪昭一理 滿城星月復生光)” 라고 했다.

1900년대 초 홍종시가 남긴 『제주고적도』 (그림 1)는 제주성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유적과 함께 칠성대의 위치를 북두칠성의 형태로 그려놓았다.



(그림 1) 1900년 초 홍종시의 '제주고적도(탐라성주유사)'에 표시된 칠성대의 위치(인용:(사)한라생태문화연구소, 제주성내 칠성대 역사문화자원 발굴·활용기본연구보고서, (발자국 모양으로 표시된 부분이 칠성대 위치임))

특히 이 지도는 구전이 아니라 일제에 의해 칠성대가 사라지기 전의 상황을 그리고 있어 종전 칠성대만 표시했던 지도와는 사료적 가치가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일제 강점기인 1923년에 심재 김석익의 『파한록』에 남긴 기록도 칠성대에 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석익은 이 글에서 당시까지 ‘칠성대가 현 위치에 질서정연하게 남아 있는데 그 중 칠성동에 있는 별자리 하나가 일본인에 의해 평탄화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칠성대 유적의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매일신보는 칠성단에 관한 기사를 두 차례(1926년 5월 11일자, 같은 해 6월 14일자) 게재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칠성단이 1920년대 후반까지 존재했고, 그 형태는 어떠한지, 칠성단은 어떤 의미를 간직한 유적인지를 유추 해석할 수 있다.(그림 2)



(그림 2) 1926년 5월 15일자 매일신보에 게재된 칠성대의 모습. ; 기사내용을 보면 순종임금이 승하하자 제주 시민들이 철성한 뒤 소복을 입고 갑자의숙 뒤편 칠성단에 모여 망곡식을 지내고 있다는 내용을 실고 있다.

해방 이후인 1954년 담수계(淡水契)가 펴낸 『증보 탐라지』에도 칠성도의 위치를 기록해 놓고 있다. 즉 칠성도에 관해 “제주읍내에 석축구지(石築舊址) 7개소가 있으니 고·양·부 삼을라가 1, 2, 3도를 분점하고 북두형(北斗形)을 본떠 대를 쌓고 분거(分居)한 고로 성내를 대촌이라 전한다”고 했다. 『증보 탐라지』는 일제 강점기에 사라진 칠성대를 직접 보았다고 여겨지는 세대들이 칠성대의 위치에 관해 기록한 자료여서 신뢰성이 매우 높다. 홍정표와 홍순만의 칠성대에 관한 기고는 고씨 종문(高氏宗門)에서 펴낸 『탐라성주유사』에 수록되어 있다. 그 중 홍정표의 글은 칠성대와 관한 최초의 연구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다. 최근 홍기표는 칠성대에 관한 문헌자료는 모두 20여종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5)</sup>.

4) 이 자료는 제주시에 거주(세종의원)하는 김순택씨가 소장하고 있다.

## 2. 칠성대는 언제 쌓았나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칠성도에 대해 “삼성이 처음 나왔을 때 삼도를 나누어서 차지한 뒤 북두성의 형체를 모방하여 대를 쌓고 나누어 거처하였기 때문에 칠성도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이 문헌 기록을 본다면 칠성도의 축조 시기는 삼성의 출현과 같은 시기로 보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이후 여러 기록에서도 재인용되고 있는데 칠성도가 정확히 언제 세워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홍기표는 칠성도 축조와 관련하여 문헌에서 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삼국사기』·『고려사(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탐라지(이원진)』 등을 통해 그 시기를 삼성이 출현하여 혼인을 하고 화살을 쏘아 거주지를 정한 뒤, 삼성부족이 번성하면서 부족국가 단계에 이를 때 칠성도를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홍은 칠성도가 언제 세워졌는가의 축조시기 문제는 고고학적 연구와 병행하며 구명돼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역사학 분야에서 문헌에 의한 합리적 추정의 일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5)</sup>.

- (1) 칠성도는 탐라국 건국 초 삼성부족이 출현하며 고을이 형성된 후 세워졌다.
- (2) 삼성부족이 일정의 부족국가체제를 이루고 나서 칠성도는 제단으로든 상징적 축조물이든 활용단계에 있었다.
- (3) 고후 일행이 신라에 입조하기 이전에 칠성도는 축조되었다.
- (4) 고후 일행의 신라 입조는 백제 문주왕 이전이다.
- (5) 결국 칠성도 축조의 최대 하한선은 백제 문주왕 이전이다.
- (6) 칠성도 축조의 연대는 ‘통일신라 이후’가 아닌 ‘삼국시대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칠성대는 왜 세웠는가

『탐라성주유사』에 실린 홍정표의 글을 보면 칠성대는 ‘북두칠성에 대한 봉제(奉祭)의 제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삼을라가 대촌(현 제주시)에 거처를 나누어 정한 뒤 삼을라의 수장이 중심이 되어 각 부족의 번영과 아울러 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융성함을 기원하였던 곳으로 보고 있다. 이 글에는 봉제의 형식도 언급하고 있다. “북두 제1성은 천추성(天樞星)으로 우주의 극인 북극성을 주축으로 멀고 가까운 별을 이끌어 운회하는 별이니 이 나라 통치의 백반(百般)에 관한 만능의 신력(神力)을 받기 위하여 삼을라의 수장을 비롯하여 부족들이 참례하여 봉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칠성대는 북극성에 대한 봉제를 통해 삼을라 권력구조의 중추적 구심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또 우리에게 뱀 신앙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민간의 칠성단(눌)도 칠성대와 결부시켜 설명

5) 홍기표는 ‘칠성대 유적의 역사문화적 사실 고증’(제주성내 칠성대 역사문화자원 발굴활용 기본연구보고서)에서 1900년 이전까지 칠성도를 언급한 조선시대 사료는 14종, 1900년 이후 1950년대까지 칠성도를 전하는 문헌 사료는 6종이 확인된다고 밝히고 있다.

6) 홍기표, 2011, 앞 글, p.46.

하고 있다. 즉 “삼을라 후손들이 번창하며 도 전역에 널리 분산하여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거리와 불편을 참작하여 차츰 각자 호호마다 뒤뜰에 자그마한 칠성단을 만들고 제 처소에서 제를 올리게 되었으나 고려말기 원(元)시대에 탐라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사찰에 칠성단을 마련하게 되니 주민들 일부는 불사(佛事)에 따라 칠성제를 올리게 되었고 대부분 가정에서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칠성대가 봉제의 제단이라는 해석은 최근 발굴된 1920년대 자료에서도 뒷받침된다. 1926년 당시 서울에서 발행되었던 매일신보는 5월 11일자에 “제주시민의 칠시성복(撤市成服) 비장한 봉도식(奉悼式)” 제하의 기사와 함께 관련 사진을 싣고 있다. 이 기사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임금이 승하하자 전국의 애도소식과 더불어 제주도(島)의 애도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 기사에는 “제주도에서는 이달 5월 시민 일동이 이곳 갑자의숙 뒤편 칠성단(七星壇)에 운집하여 고(故) 이왕(李王) 전하 승하에 대해 소복으로 차려입고 근엄하게 봉도식을 봉행한 사실”을 사진을 곁들여 ‘제주발(發)’로 전하고 있다. 이 신문은 또 같은 해 6월 14일자에 제주발 망곡식 후속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즉 “순종임금의 인산(因山)일을 맞아 제주도내 각 관공서 등에서는 일제히 조기를 게양, 관내 유지 및 각 단체대표들이 제주도청(濟州島廳) 후정(後庭)에서 망곡식을 거행했고, 청년단체와 시민들은 같은 날 오후 갑자의숙 후원(칠성단)에 봉결단(奉結壇)을 차리고 추도행사를 지냈다”는 내용이다.

매일신보에 실린 사진을 보면 칠성단으로 보이는 왕릉형태의 둥그런 동산 앞에 도열해 망곡행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칠성단 위에는 휘장 속에 병풍(그림 2)이 세워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 강점기에 훼손되기 직전까지 칠성단이 제주인들에게는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봉제의 제단으로 여겨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칠성대가 세워진 위치를 보면 세 부족의 결속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sup>7)</sup>.

#### 4. 칠성대는 어디에 세웠나

칠성대와 관한 조명과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칠성대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세워져 있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칠성대의 복원과 자원화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옛 문헌에는 주성 내 ‘본주 읍성 안에 일도, 이도, 삼도에 북두성의 모양을 본 떠 칠성대를 세우고’(이원진의 탐라지 고적조) 또는 ‘칠성도는 성 안에 흩어져 있다’(김정의 노봉문집)는 정도로 간결하게 언급돼 있다. 칠성대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최초의 자료는 홍종시가 1900년대를 전후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성내고적도(濟州城內古蹟圖)』<sup>8)</sup>이다.

이 지도에는 칠성대의 제일도(第一圖)는 향사당(-), 제2도 총물당(攄物堂), 제3도 어변청(禦邊廳), 제4도 향교(一, 三), 제5도 좌우위랑(左右衛廊), 제6도 우암유허(尤庵遺墟), 제7도 천일관(天一館)으로 표시하고 있다. 홍종시의 ‘제주성내고적도’에 이어 1923년 펴낸 김석익의 『파한록』은 칠성대가 제 위치

7) 칠성대는 제주시 일도동(3개), 이도동(2개), 삼도동(2개)로 분산 배치되고 있다. 삼성이 처음 삼성혈에서 나와서 일도, 이도, 삼도로 분거한 지역을 북두칠성 모양으로 묶은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칠성대(북두칠성)가 삼성혈을 북극성으로 설정해 세워졌다는 추론과도 맥을 같이한다.

8) 제주고적도는 ‘탐라성주유사’의 홍정표가 기술한 원고에 실려 있는데, 당시 편집책임자를 맡았던 고응삼이 간직하고 있다. 고씨는 이 자료에 대해 홍정표가 자신의 조부인 홍종시가 그린 지도라고 밝혔다고 한다.

에 뚜렷하게 남아 있던 시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내용을 보면 “칠성도는 제주성 내에 있다. 삼을라가 개국하여 삼도(三徒)로 자리잡을 때 북두칠성을 모방하여 쌓은 것이라고 세상에 전해진다. 대(臺)의 터는 지금까지 질서정연하게 남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23년까지 칠성대가 완벽하게 남아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 위치는 향교전(鄕校田), 향후동(鄕後洞), 외전동(外田洞), 두목동(頭目洞)에 각 하나, 나머지 세 개는 칠성동(七星洞)에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길 오른쪽에, 하나는 길 왼쪽에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칠성동에 있는 오른쪽에 것 하나는 일본 사람의 집 담장에 들어있는데, 일본 사람이 평지로 만들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 칠성대가 정확히 어느 시기부터, 누구에 의해 사라지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955년 담수계(淡水契)가 펴낸 『증보 탐라지』에 실린 칠성도의 위치는 『과한록』에 비해 지명이 보다 구체적이다. 즉 ‘칠성도 : 제주읍내에 석축구지(石築舊址) 7개소가 있는데 ‘칠성동(七星洞) 3, 향교동(鄕校洞) 1, 위아(衛衙) 앞 1, 향청(鄕廳) 뒤 1, 두목동(斗目洞) 1’이라고 지명과 함께 개수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과한록』과 비교할 때 ▶향교전(鄕校田) → 향교동(鄕校洞) ▶향후동(鄕後洞) → 향청(鄕廳) 뒤 ▶외전동(外田洞) → 위아(衛衙)앞 ▶두목동(頭目洞) → 두목동(斗目洞) ▶칠성동(七星洞)→ 칠성동(七星洞)으로 지명 일부를 바꿔 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차이 나는 지명은 외전동(外田洞)으로 외전동의 정확한 지명과 위치는 좀 더 추적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탐라성주유사』에 실린 홍순만의 ‘주성고’(州城考)에는 칠성단(臺)이 소재했던 위치를 현재의 지번과 함께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칠성대의 정확한 위치 파악에 소중한 자료다. 그 위치는 제주시 일도동 1308번지(金濟汝댁), 일도동 1345번지(李東日醫院), 일도동 1390번지(舊 姜世篤家), 일도동 1379번지(平和旅館), 삼도동 93번지(金榮珍댁), 삼도동 159번지(趙藥局), 이도동 1481번지(金芳勳댁)으로 지목하고 있다.

『탐라성주유사』에서 주목할 점은 칠성대가 삼성혈을 북극성으로 설정해 축조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칠성대가 세 부족이 모흥혈에서 용출해 일도, 이도, 삼도에 분거한 뒤 북두성 모양을 모방하여 칠성대를 쌓았다는 기록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있다. 칠성대가 세 부족이 분거한 1도, 2도, 3도를 잇는 형태로 배열했다면 세 부족의 뿌리인 삼성혈을 하나의 북극성과 같은 대상으로 설정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인 천추성은 북극성을 주축으로 운행하는 별이라는 점과 세 부족의 근원지를 북극성으로 설정했을 개연성이 높다. 더구나 천문학에서 북극성은 북두칠성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처음 별자리와 두 번째 별자리의 거리에 5배 떨어져 있다고 한다. 실제로 김태일은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한 칠성대의 위치를 구명한 결과 거의 5배 가까운 지점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 IV. 칠성대에 나타난 탐라인들의 도시공간 개념

칠성대는 탐라인들이 도시공간을 어떻게 구성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존재이다. 지금까지 탐

라시대의 도시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자료는 거의 없다. 따라서 1914년에 제작된 지적도를 통해 제주읍성의 공간과 칠성대의 분포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탐라인들의 도시공간 구성에 관한 시각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구나 1914년에 제작된 이 지도는 일제가 일부 도로를 개설하는 등 도시 일부가 변형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탐라시대 이후의 읍성과 그 주변 취락형태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다시 말해 옛 제주읍성의 공간과 칠성대의 위치관계를 통해 탐라인들의 도시 공간 구성과 발달사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고·양·부가 자신들의 영역을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으로 구획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근거로 살펴볼 때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의 특정위치에 7개의 칠성대가 제주 읍성 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읍성내 칠성대의 분포를 통해 도시공간계획과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별자리를 적용한 도시계획의 개념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극성과 북두칠성 거리는, 북두칠성 처음과 두 번째 별자리 거리의 5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본다면 칠성대는 천문상의 북극성, 즉 삼성혈의 위치와 거리를 먼저 설정한 뒤 그에 따라 칠성대를 축조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칠성대는 탐라인들의 철저한 계산과 구도 속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의 산물이자 탁월한 도시디자인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칠성대의 분포위치가 제주읍성의 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탐라인들의 정신과 신앙을 도시계획에 반영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는 활을 쏘아 나뉜 땅에 분거하면서도 전체 부족의 결속을 우선시 하는 형태로 도시공간구조를 구획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시복지(矢射卜地)의 정신, 즉 정정당당하게 겨루어 땅을 차지했던 초심을 그 후에도 어느 일방의 패권으로 상대방을 제압·통합하기보다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공영의 자세로 살아가고자 했던 정신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일도, 이도, 삼도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적 위계질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도지역이 갖는 의미는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그림 1>의 '제주고적도'(탐라성주유사)에서 보여주듯이 일도지역에 발자국 표시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도지역이 식수 등 농사와 생활여건이 매우 좋고 중요한 장소적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하듯 북두칠성의 자루에 해당하는 일도동에는 칠성대가 3개소에 배치되어 있고 산지천이 위치하고 있다.

현대도시계획에서도 도심과 부도심 등으로 공간적 기능을 부여하듯 일도, 이도, 삼도로 구분하여 공간적 위계와 기능을 가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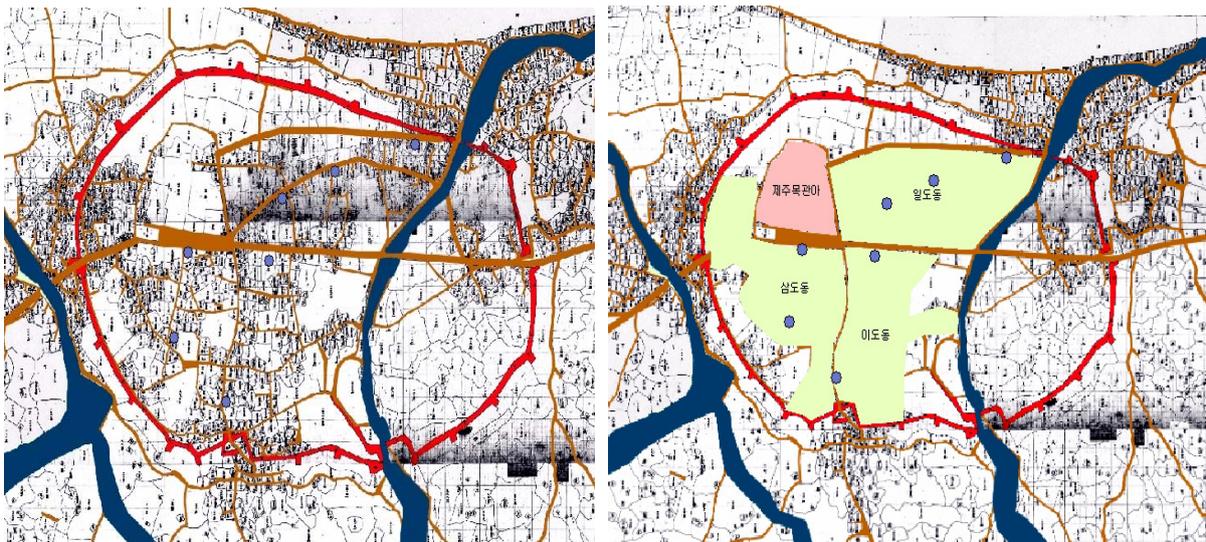
넷째, 지형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록 북향이기는 하지만 배산임수의 조건으로 최대한 자연조건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삶의 장소를 구축했다는 점과 뒤쪽으로는 산을 등지고 있는 형상으로 도시를 구축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탐라인들의 삶의 지혜를 새삼 엿볼 수 있다.

다섯째, <그림 3>과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칠성대의 위치는 대부분 도로를 중심으로 분포하

고 있다. 도시공간을 조성할 때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주요 도로를 구축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칠성대는 도로와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흔히 볼 수 있는 행정시설 중심으로 계획되기보다는 일반 주민, 백성 중심의 공간으로 계획된 일종의 민주적인 도시 사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강조할 수 있다.

여섯째, 지형적으로 볼 때 산지천과 지형, 지세에 맞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현실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 도시라고 생각된다.

일곱째,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별자리를 응용한 도시공간 조성은 한라산 가까운 곳에 위치한 칠성대와 더불어 탐라사회에 천·지·인 사상이 스며들어 있음을 시사한다. 탐라인들은 하늘에 있는 북극성·북두칠성의 존재와 함께 사람이 사는 읍성에는 삼성혈을 축으로 한 북두칠성, 땅에는 다음에 언급하게 될 한라산 정상부를 축으로 한 칠성대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사람과 땅과 하늘이 서로 소통하며 하나가 되고자 했던 탐라인들의 철학과 정신세계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림 5·4) 1914년도 지적도를 통해 본 「중보 탐라지」, 「파한록」 문헌상의 칠성대 위치비교(왼쪽)와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의 옛 행정구역상의 칠성대 위치비교(오른쪽)

## V. 제주의 별 문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는 별에 관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특히 북두칠성을 비롯한 천체(天體)는 해양·유목민족에게는 길잡이와 같은 구실을 했다. 또 별은 개인과 사회, 국가의 길흉(吉凶)과 화복을 점치고, 기우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대상으로 여겨왔다.

제주섬에도 별 문화가 풍성하게 남아 있다. 칠성대는 탐라사회 초기 형성기에 북두칠성을 모방하여 세워졌다. 이것은 해양문화권에 속한 탐라인들이 항해를 위한 길잡이로 북두칠성의 존재를 일찍 간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탐라인들은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단순히 항해지표로만 여기지 않고 고·

양·부 세 부족의 결속과 단합, 탐라의 국운융성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제단으로 삼아왔다. 칠성대는 '탐라의 왕성(王城)'이 있던 지역에 세워졌다. 처음 고·양·부 세 부족이 삼성혈에서 솟아나와 활을 쏘아 일도, 이도, 삼도를 나누어 정한 뒤 쌓은 칠성대는 그 후 특정 부족을 넘어 탐라를 구성하는 모든 부족의 결속과 번영을 위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온 것이다.

따라서 세 부족의 용출지를 북극성으로 설정한 뒤 북두칠성을 모방해 쌓은 칠성대는 탐라사회의 번영과 융성을 모색해 온 탐라인들의 흔적과 더불어 탐라사회를 일구어 온 정신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칠성대는 주성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한라산에도 칠성대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자료도 남아 있다. 1689년 제주관관으로 도입한 김치(金緻, 1577~?) 관관의 한라산 등반기에는 “수행동을 지나서 10여리를 가자 칠성대에 닿았다. 칠성대로부터 동쪽으로 5리쯤 가자 석벽이 깎아 세워지고 반공(半空)에 기둥처럼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곧 상봉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 몇몇 제주 고지도에도 한라산에 칠성대 표시를 하고 있다. 1861년 김정호에 의해 그려진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와 동여도(東輿圖)가 그것으로, 이들 지도에는 한라산 혈망봉(한라산 정상을 지칭) 서쪽에 '칠성대(七星臺)'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도(濟州圖)'에는 주성(州城) 내 칠성대 표시와 함께 한라산 서쪽에도 존자석이라는 이름의 일곱 개의 큰 바위를 그려놓고 있다. 이러한 문헌자료들을 볼 때 제주선인들은 주성(州城) 내는 물론 한라산에도 '북두칠성' 모양의 '칠성대'를 쌓거나 지형지물을 이용해 의미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장수를 상징하는 노인성(老人星)에 관한 기록도 솔하게 등장하고 있다. 충암 김정(金淨, 1486~1521)이 남긴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는 남극노인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노인성의 크기는 셋별만 하고 남극의 중심에 있으나 지상에 나오지 않으므로 만약 이 별을 보게 되면 장수한다는 상서로운 별이니 다만 한라산과 중국의 남악에서만 이 별을 볼 수 있다”고 했다. 1841년 제주목사로 도입한 이원조(李源祚, 1792~1872)의 탐라지도병지(耽羅地圖并識)에 “춘분, 추분날 남극노인성을 바라볼 수 있음으로 해서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남극노인성은 수성(壽星)을 뜻하는데 각항(角亢)에 해당하는 별자리로 사기(史記)에는 이를 남극노인성이라 부르고 이 별이 보이면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했다. 정조실록(正祖實錄) 정조 18년(1794) 4월 21일자 기록에는 제주 유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대들에게 묻는데 노인성을 본 사람은 장수한다고 한다. 노인성은 항성(恒星)인데 세상에서는 남극의 중추라고도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가”라고 물었다고 전한다. 제주의 노인성에 대해 조정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처럼 노인성은 장수를 뜻하는 별인 동시에 한라산의 불로초와 더불어 제주를 장수의 섬으로 인식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세간에 전해지는 영주12경(瀛州十二景)의 하나인 '서진노성(西鎮老星)'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조선시대 토정비결(土亭秘訣)을 남긴 토정 이지함(1517~1578)도 노인성을 보기 위해 세 차례나 한라산을 올랐다고 전해진다.

칠성은 기우(祈雨)의 대상, 또는 인간의 장수와 재물을 관장하는 신 등으로 민간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는 재물과 소원성취의 신의 기능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두칠성을 뜻하는 칠월칠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 비를 뿌리면 풍년이 든다는 설화도 전해진다. 특히 민간에서는 사람이 죽으

9) 실제로 한라산 정상부 남동쪽 '선작지왓' 일대에는 '탐케'를 비롯하여 길이 20여m, 너비 10여m 남짓한 커다란 규모의 돌무더기 7~10개가 넓게 흩어져 있다.

면 하늘(북두칠성)로 올라가게 된다고 믿어왔다. 사지(四肢)를 일곱 마디로 묶고 관 두경에 북두칠성을 표시하는 ‘칠성관’도 사자(死者)를 무사히 북두칠성이 있는 곳으로 보내기 위한 일종의 ‘화물표’라고 볼 수 있다.

## VI. ‘별의 도시, 제주’ 디자인을 위한 방향과 과제

### 1. 방 향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들어 도시디자인에 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이루어졌고 관련 조례도 만들어졌다. 2011년 초에는 도시디자인본부가 설치되며 인력이 배치되기도 했다. 도시디자인에 관한 당국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괄목할 만한 변화의 흐름이다. 특히 새롭게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은 종전의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던 것과는 달리 ‘제주다운 서사적 풍경의 구축’을 제주 경관 및 관리계획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사적 풍경은 과거에 지속적으로 땅에 새겨온 기억들을 보전하고 새롭게 해석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욕망이 덧씌어져 가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풍경이다. 여기에는 ‘문화가 부가된다. 문화는 예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류학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은 제주도 전역을 망라하여 시가지와 주요 도로의 노선과 경승지, 해안선을 따라 총 100개의 대표 조망점을 선정, 향후 해당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 통제점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다운 서사적 풍경’에서 칠성대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는 칠성대에 관한 제주사회의 인식을 반증한다. 과거 1,500여 년간 제주사회를 관류해 온 칠성대의 의미가 일제강점기 칠성대가 훼손되면서 전통의 단절과 함께 칠성대가 갖고 있는 서사적 풍경도 제주사회의 기억에서 지워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칠성대는 그대로 잊혀져도 되는 것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칠성대는 탐라사회의 결속과 단결을 통해 공동의 번영과 융성을 기원하기 위해 탐라인들이 쌓은 가장 오래된 역사문화 유적이다. 칠성대에 내재된 정신문화는 오늘날 갈등과 분열로 점철되고 있는 제주사회를 일깨우는 죽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또한 탐라왕국의 핵심지역을 크게 나누어 돌과 흙으로 대(壇)를 쌓은 것은 대단한 조형감각이며 도시디자인의 지표라 아니 할 수 없다.

해양민족이나 유목민족들에게 북극성과 북두칠성은 더 없이 중요한 좌표이며 개인과 가정, 사회의 흥망과 길흉, 한 해 농사의 흉풍(凶風)을 점치던 대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흔히 국제자유도시를 향해 향해하는 거대한 선박으로 비유된다. 이는 탐라사회가 형성된 뒤 이후부터 오랜 세월을 걸쳐 끊임없이 항해에 나섰던 탐라사회의 자취를 반영한다. 그 때마다 탐라인들은 거친 풍랑 속에서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보며 자신들이 처한 좌표와 나가야 할 방향을 읽으며 희망과 도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북두칠성을 비롯한 별 문화는 인류가 공동으로 간직하고 있다. 칠성대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제주의 독창성과 인류가 간직하고 있는 별 문화에 대한 보편성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정체성을 돋보이게 하는 이미지이며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웃도시들과의 소통과 연대에도 매우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별 문화 속에 내재돼 있는 엄청난 양의 콘텐츠다. 그것은 가공하기에 따라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끊임없는 지적인 사고에 활력을 공급하는 압축파일과 다르지 않다.

## 2. 과 제

제주시는 최근 ‘제주성내 칠성대 역사문화자원 발굴·활용을 위한 기본연구 보고서’를 펴냈다<sup>10)</sup>. 제주시는 칠성대가 위치해 있었던 제주시 원도심(옛 제주성안) 내 7개소에 표지석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또 표지석을 설치한 뒤 이곳을 따라 칠성대 역사문화자원을 소개하는 트레일 코스도 운영할 계획에 있다. 표지석은 전면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칠성대 기사를 음각하게 된다. 이어 ‘칠성대는 탐라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최고(最古)의 유적으로 탐라사회의 결속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문화상징이며, 칠성대는 해상왕국이었던 탐라의 역사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된다.

또한 칠성대 유적이 있는 도로의 벽면을 이용해 홍종시가 그린 ‘제주성내 고적도’와 1926년 매일 신보에 실렸던 칠성단 사진을 부조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주시의 칠성대 문화유적의 자원화 방안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칠성대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칠성대의 자원화를 위한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칠성대가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들의 뇌리 속에서조차 사라진 제주의 서사적 풍경을 되살리고, 국제자유도시를 상징하는 대표적 도시디자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칠성대 프로젝트’<sup>11)</sup>에 의한 종합적이고 단계별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칠성대의 발굴·복원이다. 칠성대는 탐라사회의 전개와 탐라인들의 고대신앙, 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최고(最古)의 유적이다. 따라서 최근 제주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탐라문화권의 복원과 정비 차원에서 가장 먼저 발굴·복원되어야 할 대상이다. 칠성대가 들어서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도시화로 인한 주택과 고층건물이 들어서 있다. 따라서 발굴·복원을 위한 토지와 건물 등을 단기간에 매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칠성대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특히 북두칠성은 최근 타 시·도에서 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활용하는 사례<sup>12)</sup>가 늘고 있어 1

10) 이 연구용역은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소장 강문규)가 수행했다. 주요 내용은 칠성대 유적의 역사·문화적 사실 고증, GIS(지리정보시스템)분석을 통한 칠성대의 위치 규정, 칠성대 유적을 활용한 트레일 코스 개발, 칠성대 표지 및 안내를 위한 시설계획 등으로 짜여 있다.

11) 강문규는 2010년 10월 ‘제주시 희망포럼’ 세미나에서 ‘칠성대 프로젝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 ‘일곱별 따라 걷기’ 트레일 코스개발, ▶ 칠성대 주변의 창작과 발표의 거리조성, ▶ 칠성대 문화컨텐츠를 활용한 축제개발, ▶ 칠성대 광장 조성, ▶ 칠성대의 복원을 통한 사적지 지정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12) 최근 북두칠성을 도시의 새로운 브랜드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전광역시도 북두칠성을 ‘대전시의 별’로 선포하고, 북두칠성 형태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북두칠성형 관광벨트사업’을, 경북 경주시는 북두칠성의 개양성(開陽星)을 ‘경주의 별’로 지정·선포, 천문대와 더불어 ‘별의 도시’로 상징화하고 있다.

천년이 넘는 칠성대의 자원을 사장하거나 타 시도에 선점당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복원 사업은 단계적으로 벌이돼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광교육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하루 속히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림 5>와 같이 칠성대의 이미지를 제주섬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칠성대에는 ‘탐라사회의 결속과 번영, 미지(미래)를 향한 도전, 그리고 소원성취’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는 개인과 가정, 기관과 단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인 동시에 제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두칠성의 형태를 담은 ‘칠성대기(旗)’를 제작·보급, 섬 전역에서 ‘칠성대기’를 필력있게 함으로써 ‘별의 도시, 제주’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가야 한다. 먼저 칠성로를 비롯한 원도심권 내의 상가와 주택, 기관·단체에 칠성대기를 게양토록 한 뒤 점차 제주도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칠성대기’를 제주특별자치도기로 대체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원도심권 내에 칠성대를 브랜드로 한 각종 상품, 이를테면 티셔츠, 손수건, 스카프, 커플링, 촛대, 식탁보, 깃발 등을 동판이나 석고, 목재 등으로 개발·판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제작하기 위한 공예·공방거리를 조성,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칠성대 관련 기념상품을 판매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가로등과 건물, 간판 등에도 칠성대 로고를 활용한 조형물을 다양하게 설치하고, 칠성대 형태의 문화거리 등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칠성대를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상징하는 도시디자인으로 부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현명희(제주시 산업디자인실)가 그린 칠성대 로고 도안

셋째, 한라산 정상체를 북극성으로 설정한 ‘한라산 칠성대’쌓기도 주민들의 참여 속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계절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다. 시계방향에 따라 동·남·서·북으로 운행하는 것이다. 한라산 정상체를 북극성으로 설정한다면 동·남·서·북 지역별로 제주의 지질·생태·경관자원을 상징하는 또 다른 칠성대를 쌓을 수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선인들이 한라산에 칠성대를 설정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은 적지 않다. 그리고 2012년에는 제주에서 세계자연총회가 열리게 된다. 이를 앞두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도의 자연자원 속에서 현재는 물론 후세에도 영원히 남겨져야 할 지질·생태·경관자원 7가지를 선정한다. 이어 해당지역 별로 주민과 학생,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돌탑을 쌓거나 기념표석을 세우면 된다.

이로 인한 환경훼손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꽃자왈, 하천과 계곡, 오름, 들판, 해안가, 동굴, 경승지, 습지, 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주성안의 칠성대가 삼성혈을 축으로 쌓았듯이 지질·생태자원을 엮는 한라산 칠성대는 산 정상체를 축으로 제주 섬의 동부·서부·남부·북부지역에 각각 설치 가능하다. 이를 동선으로 연결하는 트레일 코스를 개발한다면 지역별로 새롭고 의미 있는 지질·생태자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 원이라는 유네스코의 '트리플 크라운' 지역으로서의 공지와 함께 후손들에게도 이 시대의 정신을 물려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된다면 제주 섬은 그야말로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별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제주를 세계인들의 '별의 수도'로 조성해 나가는 일이다. 별은 세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먼저 전국 각 시도별로 간직하고 있는 별에 관한 문화유산을 주제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아시아권, 나아가 세계 각국의 별 문화를 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별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는 천문학으로서의 별과 더불어 신앙과 민속, 시와 그림, 음악, 조형예술, 스토리텔링에 이르기까지 별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하는 '별의 도시'로 가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칠성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 설립과 함께 별 문화를 연구하는 관련 연구소 설립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 VII. 나가며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도시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특성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앞다투며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도시디자인 개념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도입하고, 이를 전담할 도시디자인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및 관리계획'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와 미래상은 '제주다운 서사적 풍경'으로 그것이 바로 '제주다운 경관'이며, 제주경관의 정체성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되어 온 사건과 경험, 역사와 문화를 현재의 삶에 투영시키는 창의적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일관된 경관 및 관리의 틀과 항목이나 그것을 뒷받침해 왔던 논리와 기법에서 벗어나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제주고유의 경관을 창출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서사적 풍경'은 과거가 지속적으로 이 땅에 새겨온 기억들을 존중하고, 보전하면서 미래에도 남길 만한 가치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제주선인들이 탐라국을 형성할 때의 정신과 후손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선언-결속과 단결을 통한 공동의 번영과 소원 성취-이 깃들여 있는 '칠성대'야말로 바로 '서사적 풍경'의 핵심적 요소라고 판단된다.

칠성대는 1,500년간 제주섬을 관류해 온 제주정신의 모태이며, 그것은 탐라인들이 북두칠성을 보며 거친 바다를 향해했듯이 오늘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섬에 살고 있는 제주인들의 상징적 존재로 계승·발현되어야 마땅하다.

북두칠성 형태로 세워졌던 칠성대는 제주섬의 독특한 별 문화를 상징한다. 탐라왕성 중심부에 세

워졌던 칠성대는 탐라인들의 빼어난 도시디자인 기법과 조형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계의 도시들이 간직하고 있는 별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이자 기호임과 동시에 제주다움을 도드라지게 하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이다. 더구나 칠성대로 상징되는 문화콘텐츠는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한가.

탐라국 형성 초기부터 구축돼 1,500년을 이어져 온 칠성대는 일제강점기에 훼손되면서 제주인들의 기억 속에서도 거의 사라지고 있다. 반면 다른 도시들은 별을 새로운 브랜드로 활용하려는 의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방치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자칫 세계 어느 지역에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제주고유의 독창적 자원이 사장되거나 타 지역에 선점 당할 우려도 높다.

더구나 칠성대가 산재해 있었던 제주 성안은 탐라국-고려-조선-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 역사·문화·경제·사회·행정의 중심지였던 지역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인구감소와 도시세력의 급속한 감소로 원도심의 쇠퇴, 상권의 침체, 주거환경의 열악 등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반면 '문화의 세기'를 맞아 역사·문화·생태자원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의 길을 비추는 칠성대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탐라문화권 구축과 원도심권의 활성화, 시민과 관광객들의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칠성대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제주다운 서사적 풍경'을 대표하는 문화상징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이는 제주도시디자인을 통해 발전·확산·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도서

01. 李荇 외(1530), 『新增東國輿地勝覽』.
02. 金淨(1520~21), 『濟州風土錄』.
03. 李元鎭(1653), 『耽羅志』.
04. 金 儼(1735~37), 『蘆峯文集』.
05. 李源祚(1841~43), 『耽羅誌』.
06. 김석익(1923), 『破閑錄』.
07. 淡水契(1954), 『增補 耽羅誌』.
08. 高氏宗門會(1979), 『耽羅星主遺事』.
09. 증보탐라지 편찬위원회(2004),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10. 강문규(2006), '칠성대는 왜 쌓았나' 『제주문화의 수수께끼』, 도서출판 각, pp.84~91.
11. 제주특별자치도(2009),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12. 충청남도(2009),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13. 한라일보(2010년 12월 14일자), 매일신보 게재 칠성단 관련 기사.
14. 강문규(2011), '칠성대에 관한 일고찰'(제주전통문화연구소, 『불회공』, 7호), pp.31~44.
15.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2011), 『제주성내 칠성대 역사문화자원 발굴·활용 기본연구 보고서』.
16. 홍기표(2011), '칠성대 유적의 역사문화적 사실 고증',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제주 성내 칠성대 문화자원 발굴활용 기본연구 보고서』), pp.17~65.
17. 김태일(2011), 'GIS(지리정보시스템)분석을 통한 칠성대의 위치규정',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제주성내 칠성대 문화자원 발굴활용 기본연구 보고서』), pp.66~76.
18. 강문규(2011), '칠성대 트레일 코스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활용방안'((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제주성내 칠성대 문화자원 발굴활용 기본연구 보고서』), pp.77~92.

### 2. 지도 자료

- 濟州圖(18C).
- 남원양씨족보(1909), 「漢拏山 全圖」.
- 홍중시(20C 초), 「濟州古蹟圖」.